

광주 중앙근린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

시, 30일 추진위원회 발대식…시민·전문가 750명 참여
포럼서 기본구상·관리계획·운영방안 등 추진 전략 논의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 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주도의 공감 확산과 사회적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풍식(주)국민 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 총 750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장, 도시공원 위원, 지역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

하며, 자문위원으로 경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

추진위원회는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기구가 아니라 중앙근린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향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민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게 된다.

중앙근린공원은 서구 금호동·풍암동과 남구 주월동 일원에 위치한 광주 최대 도시공원으로, 전체 면적은 약 279만㎡에 달 한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뛰어난 생태·경관 가치를 지니

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 세계자연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중앙근린공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발대식은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추진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경기정 광주시장이 28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민주, 6·3지선 공관위에
현역의원 등 최대한 배제

광주·전남 지자체 금고 이자율 전국 평균 밑돌아

광주시 2.40%·전남도 2.29%…동·서·광산구는 평균 상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회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현금 의혹에 대한 영향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면, 경기도당과 같이 지역위의 숫자가 많은 지역은 일부 현역 의원을 공관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광식 내달 1일 출판기념회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전남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1금고)'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정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는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금리는 2.61%였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40%, 2.29%로 전국 평균과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하회했다.

특히 전남도는 경북도(2.15%), 대구시(2.26%)에 이어 광역 자치단체 중 3번째로 이율이 낮았다.

금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의 금리도 대부분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광주에서는 서구(3.35%)와 광산구(2.86%), 동구(2.61%)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북구(2.43%)와 남구(2.34%)가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2.41%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2.40%), 광양시·목포시(2.35%)가 뒤를 이었다. 해남군과 무안군은 2.25%에 머물렀

고, 나주시와 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완도·영광·양암·장성·장흥·진도·함평·화순군 등 14개 시·군은 2.20%였다.

신안군은 2.18%, 강진군은 2.04%로 광주·전남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주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와 동·서·남·북구 등 4개 자치구와 목포시의 1금고는 광주은행이, 전남도와 광주 광산구, 전남 21개 시·군의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내달부터 재운영

최옥실 등 편의시설 확충…산모실 증설도

나주시에 있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이 가능 보강공사를 마치고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해당 저서는 정부가 '길을 잊는 일'로 정의하며 과거의 가치와 오늘의 정체 내일의 삶을 지역이란 공간 안에서 연결하는 정지·행정적 제안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광산구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삼고 있다.

박광식 수석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나주시에 있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이 가능 보강공사를 마치고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28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종합 병원에서 윤영화 전남도 인구정책국장과 민국장,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재개원식이 진행됐다.

산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최적화된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국장이 민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의 새출발을 통해 도민과 산모에게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산모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다인 7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2월에는 여수에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3월에는 광양에 6호점이 개원함에 따라 더 많은 전남의 산모와 출생아가 편리한 산후조리원을 부담없는 가격에 이용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rnews1@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

전남도가 금융·결제 통합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 협력사업으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신규 가입 홍보 이벤트에 나섰다.

네이버페이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새롭게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 가입한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금융 플랫폼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는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등 정책 참여와 지역 상생을 연결하고 있어 서포터즈 전국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생배달앱 '땡겨요', 금융·결제 통합플랫폼인 '토스' 등 온라인 민간 플랫폼과 협력사업을 통해 6만 6000여명의 신규 가입을 이끌어내 서포터즈의 인지도 제고와 가입률 확산 주체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행정통합 과정서 주체적 역할 할 것"

여수·순천·광양시의회 의장, 공동선언문 발표

전남 동부권 3개 시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서 주체적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을 통해 동부권의 산업적 위상과 기능이 통합 논의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동부권의 국가산업 거점 기능과 잠재력을 반영한 행정통합 추진, 미래 첨단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 에너지·물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초광역 경제 협력 속에서 동부권의 역할 명확화, 교통·물류·에너지 등 광역 인프라 확충 시 동부권 산업 기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투자 등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소멸 읍면 지역 확대 적용을 포함한 농어촌 재정·인구 대응 제도의 특별법 명문화,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서부권 간 격차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수=송월근 기자 swg331@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28일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도, 네이버페이와 사랑애서포터즈 가입 협력

이용자 1만명 대상 신규가입 이벤트…선착순 포인트 제공

전남도가 금융·결제 통합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 협력사업으로 전남 사랑애서포터즈 신규 가입 홍보 이벤트에 나섰다.

네이버페이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새롭게 전남 사랑애서포터즈에 가입한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현재 전남 사랑애서포터즈는 64만명을 넘어섰으며, 관광·숙박·음식점 등 940여개의 할인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사랑애서포터즈 참여를 전국으로 넓히겠다"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전남의 강점과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